

박정화 대법관 퇴임 “대법원 구성 다양화, 정의로운 판결의 첫걸음”



법조인 동정

- 문재인 정부 첫 임명 두 대법관 퇴임
- 조재연 대법관 “과거사 사건, 포괄적 해결책 모색해야”

박정화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대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다양한 성장환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람과 삶을 향한 깊은 애정과 통찰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건에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기억한다.”며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

려야 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늘 회의하고 경계하면서 사건을 바라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계도 있었지만 그간 판결이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적 대화와 상호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법은 대체로 현실을 뒤쫓아가지만 때로는 현실을 앞서가기도 한다.”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론에 흔들리지 않으며



<박정화 대법관(오른쪽)과 조재연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일은 법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고 했다.

조 대법관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 이론과 통상적인 재판에 따른 결론만으로는 실질적 정의 구현과 형평성 있는 해결에 미흡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신뢰를 향한 길은 매우 힘들고 긴 여정’이라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묘수를 찾기보다 재판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퇴임하는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대법관들이다. 후임으로는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추천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대형 로펌 의뢰로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이 미뤄진 상태다.

(저작권자/경향신문 & 경향닷컴)